

한국전쟁의 21세기적 소비 양상

— -〈태극기 휘날리며〉와 〈집결호〉 비교를 중심으로* —

이승희**

目 录

1. 냉전기억에 대처하는 21세기적 포즈
2. 형제애와 전우애: 휴머니즘의 재림
3. 국가에 대한 새로운 상상
4. 탈정치 시대의 '냉전'

1. 냉전기억에 대처하는 21세기적 포즈

세상의 모든 이름에는 명명자의 주관적 의지와 희구가 담겨있다.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지라도 동시에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름들은 각각의 정치적 지표가 된다. 이름들의 충돌과 교섭과 전복은 그 자체로 치열한 정치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른바 명명의 정치. 한국전쟁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작동한다. ‘항미원조(抗美援朝)’. 중국에서 한국전쟁을 일컫는 이름이다.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원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뜻으로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6·25 사변’, ‘6·25동란’, ‘6·25전쟁’¹⁾ 등으로 불려왔다. ‘6·25’를 강조함으로써 1950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0574)

** 漢陽大學校 中國學科 講師.

1) 남한에서는 상기 명칭을 통해 한국전쟁을 소련의 지지를 받은 북한 공산당이 민족 전체를 고통에 빠뜨린 사건으로 간주한다. 반면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불려왔는데, 그것을 한반도에서 미군을 축출하고 민족통일을 이루고자 분투했던 전쟁이라고

년 6월 25일에 벌어진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고 그 배후의 조력자 소련과 중국을 ‘적’으로 분류한다. 한·중 양국에서 한국전쟁²⁾을 지칭하는 이름에는 이처럼 냉전의 흔적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



<남과 북> 영화포스터

동일한 전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기억하는 주체에 따라 전쟁의 재현 양상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한국에서 6·25전쟁 영화는 “황폐한 땅을 가로지르는 피난민의 행렬”이라는 이미지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전쟁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영웅담과 숨 막히는 스펙터클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그 대신 ‘피해자’로서의 자기 인식이 엿보이며, 이는 ‘회한’이라는 정서적 코드로 무장된다. 1965년 작 <남과 북(南과 北)>³⁾을 그 전형적 일례로 볼 수 있다. 8·15 직후 남하한 애인을 찾아 귀순한 북한군 부대 대대장에 관한 이야기이다. 주제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는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기억한다. 1983년 KBS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으로도 사용되어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던 곡이다. “암전한 몸매의 빛나는 눈/고운 마음씨는 달덩이 같이” 착했던 여주인공에게 가해진 운명의 세례는 가혹했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가역적 ‘고난’이었다. 소위 한국인 교유의 정서라고 일컬어지는 ‘한(恨)’은 민족 최대의 비극적 사건을 거치면서 피해자로서의 자기규정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중국 대륙으로 옮겨가는 순간 한국전쟁의 양상은 180도 달라진다.

주장한다.

- 2) ‘한국전쟁’은 제3의 명칭이다. 이데올로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기되었으나, 이 역시 만족할 만한 표기법은 아니다. 전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타자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의 전쟁 재현 양상을 최대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비교하기 위해 ‘한국전쟁’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 3) 1962년 KBS 제1라디오에서 방송된 동명의 라디오 연속극을 각색한 것으로 실화에 기초하여 제작되었다.

4천여 명 사망, 25만 2천여 명 부상, 2만 5천여 명 실종.⁴⁾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패해는 막대했다. 하지만 휴전 직후 중국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항미 원조 전쟁의 ‘위대한 승리(偉大的勝利)’를 성대하게 자축했다.⁵⁾ 사실상의 패배를 궁극적인 승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음 작업들이 진행되었다. 첫째, 건국 초기 공산당 집권의 정치적 명분을 굳혔으며, 둘째 정적으로서의 미국과 대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규정했고, 셋째 한국전쟁을 계기로 중국 공산당 창립-항일전쟁-국공내전으로 이어지는 혁명역사의 계보를 완성했다.⁶⁾

이 글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제작된 블록버스터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강제규, 2004)와 <집결호>(평샤오강, 2007)를 대상으로 양국이 21세기에 들어서 동아시아 냉전역사 최대의 산물인 한국전쟁을 어떻게 소환해냈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⁷⁾ <태극기 휘날리며>와 <집결호>가 문제적인 이유는 한·중 양국이 냉전 시기 상반된 체제를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기억해 내는 기제가 신기할 정도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태극기 휘날리며>는 지난 세기 방공영화의 획일적인 영화문법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집결호>가 이전의 주선을 영화와 차별화되는 것처럼 말이다. 두 영화 모두 애국심과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인공의 혼란과 분열

4) 沈志華,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에 대한 평가」,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 2001, 273쪽.

5) 돌아온 인민지원군들은 개선장군과 같은 환대를 받았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最可愛的人)”이란 칭호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항미 원조 전쟁의 승고한 뜻을 기렸다. 아울러 1954년 9월에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전문에서는 ‘항미원조’ 전쟁이 토지개혁, 반혁명분자 진압, 경제부흥 등 주요 정책과 더불어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를 구축하는 데 공헌한 4대 요인 중의 하나였다고 명시했다. 한국전 참전을 긍정할 뿐 아니라 그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6) 이에 대해서는 이승희, 「전쟁의 정치적 변용: 50-60년대 ‘항미원조’ 전쟁영화를 중심으로」, 『사이間SAI』, 제 17호, 201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75~106쪽 참조 가능.

7) 이 글에서의 <집결호>에 대한 분석은 본인의 한겨레 연재 “이승희의 중국영화 이야기 3<21세기 중국 영화는 왜 한국전쟁을 소환했을까>”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748639.html>

에 카메라 렌즈를 가까이 들이댄다. 클로즈업 되는 것은 냉전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휴머니즘의 따스한 숨결이다. <태극기 휘날리며>의 주인공 진태가 적진에 뛰어든 것은 결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동생 진석을 어머니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단지 그뿐이다. 공산당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부하들의 시체를 찾아 헤매는 <집결호>의 주인공 구즈디와는 국적만 다른 영혼의 쌍생아이다. 포스트 냉전 시대, 한·중 양국에서 ‘홍행의 귀재’로 불리는 두 감독 강제규와 평샤오캉이 전쟁영화를 휴머니즘의 필터로 걸러내었다는 사실, 그리고 두 감독의 이런 선택에 각국 관객이 열광했던 현상⁸⁾은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할 대목이다.



<태극기 휘날리며> 주인공:
애국심 없이 전쟁 영웅이 되는 진태



<집결호> 주인공: 이념도, 사상도 없이
전쟁의 공을 세운 구즈디

휴머니즘은 흔히 인간주의·인문주의(人文主義)·인본주의(人本主義)로 번역된다.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사상적·정신적 태도를 지칭한다. 사실 이는 꽤 모호한 정의이다. ‘인간’ 혹은 ‘인간다움’은 역사적 단계마다 다르게 이해될

8) <태극기 휘날리며>는 한국영화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117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2004년 기준으로 한국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수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영화 사전 최다 예매량(7만3천장), 영화사상 최대 개봉스크린(443개), 한국영화 개봉 첫날 최대 관객 동원(32만4천명), 영화사상 최단기간 200만명 돌파(208만명·개봉 5일)의 신기록을 세웠다. 한편 <집결호>는 무명에 가까운 배우들을 기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흥행 기록을 세웠다. 중국에서 개봉된 지 4일 만에 7천만 위안(약 90억 원)의 관람료 수익을 내었으며, 6주 연속 중국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15~16세기, 유럽에서부터였다. 신학 중심의 세계관에 반기를 들며 교회의 권위 아래 질식되어가는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 확대된 휴머니즘은 이후 몇 차례의 굴절을 겪게 되었다. 17세기에는 근대과학의 합리적 정신과 결부되었고,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계승되면서 ‘진보’의 관념을 낳기도 했다. 20세기에 들어서 휴머니즘은 자유민주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 간의 논쟁으로 심화되었다. 폴 커츠가 <휴머니스트 선언 2000>에서 ‘새로운 지구적 휴머니즘(Planetary Humanism)’을 거론한 이후로는 피어 싱어, 한스 쾅 등 사상가들이 민족주의적·인종적·종교적·종족적 소비니즘을 넘어서는 글로벌 윤리를 제창하고 있다.⁹⁾ 범박하게나마 휴머니즘의 역사를 되짚어본 것은, 휴머니즘이 고고학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문제적 개념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러한 휴머니즘이 바야흐로 또 한 차례 굴곡을 겪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왕후이가 지적하듯이, 서구의 1960년대가 전후 당-국 체제(party-state or parties-state)와 그 국내외 정책을 치열하게 비판했다면, 아시아의 1960년대는 패권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사회운동과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를 다시 세우고자 했다.¹⁰⁾ 하지만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이데올로기가 서구 지식인들의 상상력을 지배하는 주도적 가치가 된 이후로 아시아 좌파들에게까지도 사회운동과 무장투쟁의 의미는 퇴색되어 갔으며¹¹⁾, 가장 최악의 현상으로 신자유주의의 전 지구적 범람이 초래되었다. 요컨대 ‘세계시장’ 개념이 탈정치화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목도되는 것은 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국가 체제의 꿈틀거림이다. 2016년 브렉시트(Brexit), 2017년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과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등은 허약해진 국가체제의 재건을 알리는 증후들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 시대 휴머니즘은 탈정치화 된 세계의 유희유로서 지난

9) 폴 커츠 지음, 이지열 옮김, 『세속적 휴머니즘이란 무엇인가』, 미지북스, 2007, 79~80쪽.

10) 왕후이 지음, 성근제·김진공·이현정 옮김, 『탈정치 시대의 정치』, 돌베개, 2014, 64쪽.

11) 위의 책, 65쪽.

세기 냉전의 틈새를 메우면서 포스트 냉전 시대 자국중심주의 운영에 상당정도 기여하고 있다. 요컨대 휴머니즘은 냉전기억에 대처하는 21세기적 포즈 가운데 하나이다. 휴머니즘의 새로운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첫째 포스트 냉전 시대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장에서 휴머니즘이 어떻게 다시 쓰이는가, 둘째 휴머니즘, 그것 자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혼란과 분열에 빠진 대중심리를 동원하여 새로운 사회통합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가, 셋째 냉전시기 기억(예컨대 한국전쟁)의 문화적 소비 과정에서 전지구적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는가를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형제애와 전우애: 휴머니즘의 재림

영화적 소재를 늘 고민하던 내게 한국식 전쟁영화는 이에 딱 맞아 떨어지는 매력적인 아이템이었다. 우리만의 전쟁영화가 나올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한국전쟁의 참상을 소재로 이념과 전쟁 영웅을 다루기보다는 철저히 한 인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 있다면 한국식 전쟁영화로서의 특화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한다.¹²⁾

강제규 감독의 말이다.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한국전쟁 영화와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 목적은 “우리만의 전쟁영화”, “한국식 전쟁영화”를 만들어 “특화”, 즉 세계시장에 팔릴 만한 상품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는 판소리 명창 고 박동진 선생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며 브라운관에서 외치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며,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국제화 전략과 연속선상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특화”라는 단어는 정확하지 못하다. 오히려 ‘규격화’가 적합할 듯하다. “이념”에서 “인간”으로 포커스를 옮기는 작업은 당시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에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

12) 강제규필름, 『태극기 휘날리며 메이킹북』, 주)시공사, 2004, 26쪽.

다. 휴머니즘은 이미 21세기 초반에 만국 공통의 이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화산업 종사자들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휴머니즘을 세계시장 진출을 향한 포석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강제규 사단은 2004년 9월, <태극기 휘날리며>를 미국 35개 스크린에 올려 총 36만여 달러의 흥행 수익을 얻어냈다. 이는 미국에서 개봉된 한국영화 가운데 역대 최고 수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박스오피스 4위에 올랐으며 같은 해 9월 26, 27일 이틀간 약 13만 3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약 2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세계 각국에서 40억여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다.¹³⁾ 한국전쟁이라는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한반도 역사가 휴머니즘과 접목되는 순간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이다.

중국에서의 러브콜이 들어왔다. <집결호> 제작사에서 기술교류를 요청해 온 것이다. 이에 <태극기 휘날리며> 기술팀이 대거 투입되었다. 한국의 MK 픽쳐스는 특수효과, 특수분장, 무술, 음향 등 고도의 영화기술을 다시 한 번 발휘했다. 중국에서의 쾌거가 이어졌다. 휴머니즘 기반의 서사구조에 기술적 도약을 더한 <집결호>는 2007년, 중국에서 최고 흥행작이 되었다.

그럼 휴머니즘의 코드가 각각의 작품 내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태극기 휘날리며>의 핵심은 ‘형제애’이다. 종로 사거리에서 구두를 닦는 진태에게 동생 진석은 유일한 희망이다. 전교 1등을 도맡아하는 진석을 서울대에 보낼 꿈에 부풀어있다. 병어리 어머니에 동생들이 줄줄이 달린 약혼녀 영신까지, 책임질 사람 투성이이다. 그래도 진태는 사랑하는 가족들 덕에 즐겁기만 하다. 그런데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갑자기 서울이 화염에 휩싸인다. 진태는 가족과 영신네를 데리고 피난길에 오른다. 그런데 대구역에 이르러 남쪽으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던 중 진석이 군인들에게 붙잡혀간다. 진석을 찾아 군용열차에 뛰어오른 진태는 도리어 군인들에게 집단 린

13) 이태훈, 「21세기 세계 영상문화산업 및 트렌드에 관한 분석 - <태극기 휘날리며>의 성공과 세계화의 노하우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Vol.6 No.2, 2005, 204쪽.

치를 당한다. 진석을 구해내기는커녕 자신 또한 징집되어 둘은 최전방으로 끌려간다. 그곳에서도 진태는 진석의 보호자 노릇을 한다. 여리고 심약한 동생이 다칠세라 곁을 떠나지 않는다. 대대장을 찾아간 진태는 무공훈장을 조건으로 동생의 징집해제를 약속 받는다. 이후 진태는 전쟁괴물이 되어간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빨갱이 죽이는 거야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끝내 대대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심지어 동생이 구금당한 창고마저 화재로 소실된다. 광분한 진태는 복으로 넘어가 인민군 깃발부대장이 된다.



<태극기 휘날리며>: 강제징집 당하는 진태와 진석. 21세기에 들어 애국심은 호소력을 잃었다. 이를 반영하듯 주인공은 자의가 아니라 폭력적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전쟁터로 끌려나간다.

그간의 6·25전쟁 영화에서 개인과 역사의 운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왔다. 서사적 특성상 개인의 이야기를 빌어 역사적 순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개인은 역사의 편린으로서만 존재할 뿐 그 이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태극기 휘날리며>에서는 개인서사가 역사적 서사를 압도한다. 개인이 역사적 명분에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이에 맞서 자신의 가치를 고집하고 자기 고유의 삶을 고수하려 애쓴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태극기 휘날리며>에서의 개인은 순수한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만 존재함을 발견하게 된다. 진태의 정체성은 ‘형’이다.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동생, 약혼녀를 지켜야 하는 형 말

이다. 21세기에 들어 한국에서의 6·25전쟁 영화는 더 이상 반공 이데올로기를 좇지 않았다.¹⁴⁾ 휴머니즘이 주된 정서로 떠오른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서사전략은 가족주의에 기대는 것이었다. ‘누가 내 나라를 지키랴’는 텅 빈 구호가 되어버렸지만, ‘누가 내 가족을 지키랴’는 외침은 여전히 유효했다. 그렇게 가족주의는 휴머니즘의 가면을 쓰고 한국 관객의 심중에 파고들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과정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는 부정될 수 있었지만 그 정서적 토양은 그대로 이식되었다는 점이다. 일말의 애국심 없이 빨갱이들에게 총을 난사하는 진태에게 관객들이 아주 쉽게 감정이입 할 수 있었던 이유다. 요컨대 ‘가족’은 심리적 저항과 거부 없이 사회구성원을 국가의 일원으로 호명해 내는 효율적 장치였던 것이다.

한편 <집결호>의 키워드는 ‘전우애’이다. 1948년, 해방군 9중대 중대장 구즈디와 47명의 대원은 집결호가 울리기 전까지 철수하지 말라는 상부 명령을 받고 문하 지역으로 출동한다. 배수의 진을 치고 치열하게 싸우지만 결국 구즈디를 제외한 모든 대원이 사망한다. 구즈디는 국민당 군복으로 갈아입고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다. 투항 의심에 시달리던 구즈디는 항미원조 전쟁에 자원한다. 그리고 전장에서 지뢰를 밟은 자오 중대장의 목숨을 구하면서 그간의 오명을 벗는다. 하지만 구즈디는 여전히 괴롭다. 집결호 소리를 들었다며 퇴각하자던 부하들을 뿌리치고 전장을 고수한 자신의 아집이 부하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에서다. 부대원 47명은 실종자 처리된다. 구즈디는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시신을 찾아 나선다.

- 주인공의 목격한 집념은 가히 남자로써 본받을 만하다. ksli****
- 저런 중대장이라면 목숨을 맡겨도 아깝지가 않았을 꺼 같다... kki1****
- 자기 중대원들을 끝까지 지키는 중대장의 모습은 진정한 군인이자 리더

14) <쉬리>(1999)를 시작으로, <공동경비구역 JSA>(2000), <실미도>(2003), <웰컴 투 동막골>(2005), <고지전>(2011) 등 한국전쟁 및 분단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은 예외 없이 휴머니즘을 표방하였다.

의 모습이다. 나팔소리가 들릴 때까지 절대 퇴각하지 않는 명령복종의 정신.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감동이었다. 폭스멀더 (yg52****)¹⁵⁾

‘NAVER영화’에 올라온 한국 네티즌의 140자 평이다. 참고로 평점을 가장 높게 준 그룹은 20대 남자였다. 대부분의 중국영화 평이 반공적 발언으로 도배되는 것과 달리 <집결호>의 주인공 캐릭터만은 한국 관객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인공 구즈디가 타국에서까지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건 부하들을 향한 끝없는 전우애 때문이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속정이 깊은 구즈디가 매력적인 캐릭터임은 자명하다. 문제는 전우애가 샘솟는 순간이며, 그 순간에 폭발하는 이중성이다.

<집결호>는 공산당과 국민당의 대치 장면으로 시작된다. 양측 군인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 구즈디는 호기롭게 국민당 군을 “형제”라고 부르며 같이 만두나 먹자고 말한다. 하지만 곧이어 총성이 울리고 전투가 벌어진다. 지도원 동지가 처참하게 살상된다. 수세에 몰린 국민당 군이 항복한다. 하지만 이제 구즈디는 그들의 투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마음이 없다. 총을 내려놓고 두 팔을 든 국민당 군을 향해 미친 듯이 방아쇠를 당긴다. 포로살상 금지는 제네바 협정의 기본 수칙이지만 상관없다. ‘형제’는 내 뜻에 따라줄 때만 해당되는 얘기다. ‘하나의 중국’이 중심을 향한 주변의 무조건적 흡수를 요구하는 것처럼 말이다.

구즈디는 군을 위반으로 사흘 간 구류된다. 하지만 형식적인 조치일 뿐 군사령부조차 암묵적으로 그의 난사행위를 인정한다. 감방에서 만난 왕진춘은 교사 출신으로 전투 중 오줌을 지렸다는 이유로 끌려온 인물이다. 주눅 든 왕진춘을 만형처럼 다독이던 구즈디는 새로운 지도원으로 왕진춘을 선택한다. 섬약한 왕진춘을 보며 다들 반신반의하지만 구즈디는 “피 좀 보면 정신이 들 거”라며 기다려준다. 드디어 왕진춘은 강인한 전사로 ‘성장’한다. 그는 구즈디

15) <http://movie.naver.com/movie/bi/mi/point.nhn?code=63918#tab>

의 독려 하에 눈 하나 깜빡 않고 적군을 죽일 수 있게 된다. 살인의 필요성을 납득하게 된 것이다.

다음 스틸 컷은 전쟁이라는 극단의 경험을 통해 중국식 브로맨스가 탄생하는 장면이다. 마초 구즈디와 초식남 왕진춘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이념과 사상은 필요 없다. 구즈디가 내뿜는 아우라는 이데올로기의 그것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며 강렬하다. 선망과 경외감 속에서 왕진춘은 순종의 자세를 습득한다.



<집결호>: 감방에서 만난 구즈디와 왕진춘.

로우앵글 샷(low angle shot)을 구사하여 구즈디는 우람하게, 왕진춘은 왜소하게 그려진다. 이로써 구즈디의 멘토적 위치 및 2인의 권력관계가 부각된다.

<집결호>에서 전우애는 휴머니즘의 결정체로 그려지지만 실상은 폭력과 그에 대한 순종이라는 병적 관계일 뿐이다. 나쓰메 소세키가 자원입대하는 젊은이를 보며 “왜 만주 벌판에 자신의 피를 뿌리러 가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엔 전쟁의 아이러니에 대한 사색이 함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집결호>가 가장 공들인 작업은 전쟁의 아이러니를 휴머니즘으로 봉합하는 것이었다. 애당초 전쟁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3. 국가에 대한 새로운 상상

“너 밥 한 그릇에 군복 바꿔 입겠다?”

“굶어 뒤지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닌가”

새로운 밀레니엄, 포스트 냉전 시대를 여는 영화답게 <태극기 휘날리며>는 위와 같은 ‘탈이데올로기’적 발언을 쏟아낸다. “난 사상이 뭔지 모르겠는데 형제들끼리 총질할 만큼 중요한 건가?”라며 전쟁 자체에 대한 회의감마저 서슴지 않고 내뿜는다. <집결호> 또한 같은 편에 서 있다. 결코 공산당의 절대공명을 주장하지 않는다. 주인공 구즈디를 취조하는 공산당원들의 관료주의적 태도와 무지한 편견이 세세히 그려진다. 전쟁에서 희생당한 자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무책임한 방임 또한 여과 없이 드러난다.

그 이데올로기적 공백을 대신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정 많던 형 진태가 동생 살리자고 괴물이 되어갈 때, 약혼녀는 총살당하고 동생까지 잃은 후 정말 군복을 바꿔 입을 때, 그리고 북한군을 겨누던 총구를 국군에게로 돌릴 때, 한국 관객들은 오히려 심정적 동조를 보낸다. 구즈디가 당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실수가 잦으며, 충동적으로 화를 내는 고집불통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객들이 그에게 감정이입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에서이다. 진태와 구즈디는 21세기 새로운 인간상을 구현한다. 기존 프로파간다 영화에서의 주인공은 오로지 국가와 뜻을 함께 하며 추호의 결점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완전무결한 인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진태와 구즈디가 진정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불완전하기에 가능한 ‘인간적 면모’ 때문이었다.

‘모든 인간적 가치에 대한 옹호’를 휴머니즘의 소명으로 간주한다면, 두 편의 영화는 휴머니즘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 전에 <집결호>의 엔딩 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구즈디가 오성홍기를 향해 거수경례하는 장면 말이다.

연대장의 묘소를 찾은 구즈디는 나팔수였던 량즈를 만나 진실을 알게 된

다. 집결호는 울리지 않았다. 9중대의 전멸을 예상하면서도 연대 전체의 안전을 위해 나팔을 불지 않은 것이다. 구즈디는 배신감에 포효한다. 묘비에 대고 술병을 휘두르며 분노의 눈물을 흘린다. 묘지 관리자가 되어 죽은 상급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랑즈는 구즈디를 막아서며 외친다. “전쟁이 원래 그렇잖던가. 죽은 병사가 한 둘이 아니야.” 경이로운 건 그 다음 구즈디의 반응이다. 끔찍이도 부하를 아꼈던 그가, 그래서 10년 만에 알게 된 군의 지시에 경악하던 그가 아주 쉽게 수긍한다. 중요한 건 전체의 존속이며 이를 위한 희생은 재고의 여지없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연대장님, 다 털어버리시오. 운명을 나눠 씹어졌을 뿐. 내게 진 빛도, 내가 갚을 빛도 없소. 그만 굴레를 벗어요.

묘비에 이마를 대고 구즈디가 위와 같이 읊조릴 때 중국정부가 내세우는 화합의 논리가 비로소 완성된다. 중화민족의 오색찬란한 미래를 위해 타자를 배제하고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정당해진다. 47인의 시신이 발견된 후, 기념식을 열어 그들을 열사로 추대하며 훈장을 하사할 때 <집결호>는 아주 노골적으로 화합의 종착지를 보여준다. 눈 덮인 기념비 위의 빨간 별이 클로즈업 된다. ‘국가’라는 거대한 우산 안으로 21세기 중국의 관객들을 끌어당긴다.



<집결호>의 엔딩 신 : 1. 순국선열을 위한 의식



2. 기념비 위의 빨간 별

<집결호>의 휴머니즘이 자아내는 ‘감동’은 폭력과 숭고의 이중주를 통해 완성된다. 구즈디의 개인적 폭력성이나 당의 집단적 폭력성은 숭고한 의식을 통해 합법화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중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적확히 지시해준다. 역사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결여한 채 ‘대국굴기’, 즉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중화인민공화국 건설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 나가는 중국 인민들. 그들의 심미적 결정판이 바로 <집결호>이다.

이 지점에서 <집결호>에 대한 한국 관객의 반응을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2007년 상영 당시 한국 관객들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렸다. 주인공 구즈디에 대한 공감, 영화 스토리가 주는 감동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불온’한 이념을 문제 삼는 평도 적지 않았다.

빨갱이가 주인공인 영화가 상영되고 참 세상 좋아졌다.

잊지 말자 6.25. 공산당 새끼들은 다 죽여 버려. (아이디 lote60)¹⁶⁾

한국 관객들의 이념적인 반감은 이처럼 극단적 형태로 드러났다. <집결호>가 공산국가의 전형적인 프로파간다 영화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흰 설원 위 빨간 별이 클로즈업 되면서 집결호가 울릴 때, 이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발산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관객들은 오독했다. <집결호>에 내재된 것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다. 그 국가의 형태는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충분히 감축할 만한 힘의 크기로 그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한한령, 애국불매운동,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탈정치 시대에도 ‘전쟁’은 계속된다.

16) 네이버 네티즌 리뷰 방, 2008.1.29.

4. 탈정치 시대의 '냉전'

지난 세기 한국영화계의 일화는 실소를 자아낸다. 1965년 이만희 감독은 전쟁 영화 <7인의 여포로>로 곤경에 빠졌다. 한국군 포로 간호장교를 호송하는 북한군 장교가 있다. 도중에 만난 중공군이 간호장교를 겁탈하려 한다. 이에 분개한 북한 장교는 중공군을 섬멸한다. 그는 포로를 이끌고 부하들과 함께 '자유 대한'의 품에 귀순한다. 전형적인 반공영화 플롯이다. 하지만 당시 한국정부는 북한군을 너무 멋있게 그린 것에 심기가 불편해졌다. 특히 간호장교 중 한 명이 북한군 장교에게 “훌륭한 행동이었어요.”라고 말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결국 이 영화는 반공법 4조 1항 위반으로 기소 당한다. 이만희 감독은 40일 간의 갇은 고초를 치르고서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¹⁷⁾ 중앙정보부는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이만희 감독에게 반공영화 하나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군번 없는 용사>(1966)를 내놓았다. 이번엔 북한군으로 신성일을 캐스팅한 것이 화근이었다. 중앙정보부에서 “이렇게 잘생긴 배우를 북한군으로 캐스팅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7인의 여포로> 영화포스터

위의 일화가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여겨지는 것은, 전후 60여 년의 시간을 결코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포스트 냉전'이 정녕 도래했는지는 의문스럽다. 적어도 문화시장에서의 냉전은 끝나지 않은 듯이 보인다. 좀 더 정확히 말해야겠다. 21세기 냉전은 탈정치 시대를 맞아 20세기의 냉전과는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17) 한편 유현목 감독은 이만희 감독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발표하다가 입건되었다. <7인의 여포로>는 많은 부분 삭제를 거쳐 <돌아온 여군>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개봉되었다.

사실 124분에 달하는 <집결호> 러닝타임 중 한국전쟁을 다룬 분량은 10분이 채 안 된다. 그런데 왜 굳이 국공내전에서 한국전쟁으로 장소를 옮겨야 했을까? 구즈디가 한국전쟁에 투입되면서 조력자인 자오 중대장을 만나게 되지만 그와의 조우가 굳이 한반도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 대목에서 중국에서의 한국전쟁 명칭을 다시 한 번 되짚어야겠다.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원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개국한 지 1년도 안 된 신생국가 중국은 한국전쟁 명명을 통해 세계만방에 자국의 이데올로기적 위치를 선포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집결호>에서 한국전쟁의 1차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이 통째로 부재한다는 점이다.



<집결호> 스틸컷
한국전쟁을 빌려 전개되는 중국과 미국의 접전

교량 폭파의 임무를 띠고 나선 구즈디와 자오 중대장은 남한군 복장으로 위장한다. 목표지점으로 나아가던 중 자오 중대장이 지뢰를 밟는다. 자오 중대장은 자신을 버리고 가길 원하지만 구즈디는 전쟁터에서의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로 지뢰제거 작업에 들어간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군 탱크가 다가온다. 당황한 자오 중대장. 하지만 구즈디는 지혜와 순발력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어리석은 미군은 구즈디에게 속아 넘어가고 자오 중대장 일행은 끝내

교량폭파에 성공하여 미군의 통행로를 차단한다. 이 숨 가쁜 전개가 이루어지는 동안 동맹관계의 북한군은 물론이거니와 적대관계의 남한군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집결호>에서 한국전쟁의 주체는 오늘날의 G2, 중국과 미국이다.

사드배치를 빌미로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역시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하는 영화 <상감령(上甘嶺, 1956)>의 주제가 ‘나의 조국’, 20세기 냉전의 흔적을 간직한 이 노래는 이른바 ‘포스트 냉전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와서 아직 냉전이 끝난 것이 아님을 증명해냈다. 2011년 1월 9일,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환영하기 위해 마련한 만찬회에서 특별히 중국 출신 피아니스트 랑랑을 초청해 연주하도록 했다. 그가 선택한 곡이 바로 ‘나의 조국’이었다. 가사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친구가 오면 좋은 술로 대접하고 승냥이가 오면 사냥총으로 맞아주겠네.” 60여 년 전 미국 승냥이를 쏘아 죽이겠다고 소리 높여 부르던 곡이 백악관에서 리바이벌 된 것이다. 논란이 일자 랑랑은 이 곡이 유명한 데다 선율도 아름다워 골랐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의 말이 사실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다수 중국인들에게 이 노래는 곧바로 항미원조 전쟁을 연상시킨다. 그날 백악관에 앉아 ‘나의 조국’을 불렀던 중국 인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미지수다.

에드워드 카(E. H. Carr)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전쟁은 의도적으로 망각됨과 동시에 필요할 때만 소환되어 현재적 시각으로 각색 당하는 냉전시대 유물이다. 한반도에서조차 한국전쟁은 버려진 역사이다. 우리가 정녕 한국전쟁과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던가. 피해자로서의 자기규정을 탈피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 대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슬픔과 회한의 토로일 뿐 냉철한 각성과 실천적 행동이 아닌 까닭이다.

參考文獻

- 폴 커츠 지음, 이지열 옮김, 『세속적 휴머니즘이란 무엇인가』, 미지북스, 2007.
- 왕후이 지음, 성근제·김진공·이현정 옮김, 『탈정치 시대의 정치』, 돌베개, 2014.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기획, 백원담 · 임우경 엮음,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 중국과 한국전쟁』, 문화과학사, 2013.
- 沈志华,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에 대한 평가」,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 2001.
- 이태훈, 「21세기 세계 영상문화산업 및 트렌드에 관한 분석 - 〈태극기 휘날리며〉의 성공과 세계화의 노하우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Vol.6 No.2, 2005.
- 강재규필름, 『태극기 휘날리며 메이킹북』, (주)시공사, 2004.
- 이승희, 「전쟁의 정치적 변용: 50-60년대 ‘항미원조’ 전쟁영화를 중심으로」, 『사 이間SAI』, 제 17호, 2014, 국제한국문화문화학회.
- 이승희, 한겨레 연재-“이승희의 중국영화 이야기3” <21세기 중국 영화는 왜 한국전쟁을 소환했을까>,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748639.html>
- 中国人民抗美援朝总会宣传部 编, 『伟大的抗美援朝运动』, 北京, 人民出版社, 1954.
- 中共北京市委党史研究室 编, 『北海市抗美援朝运动资料汇编』, 北京, 知识出版社, 1993.
- 侯松涛, [抗美援朝运动与民众社会心态研究], 『中共党史研究』, 2005-2.

Abstract

The 21st Century Consumption Pattern of the Korean War -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Brotherhood Of War> and <Assembly> -

Lee, Seung-hee

This study examines the function of humanism in the post-Cold War era in two movies <Brotherhood Of War> and <Assembly>.

The rupture of Korea's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for about 40 years led to the two countries' different understandings of history. The two countries show a great disparity particularly in their perception of the Korean War, one of the most significant events in the modern history of East Asia.

Even when people remember the same war, recollections of the war can be vastly different depending on who is doing the remembering. In South Korea, movies about the Korean War depict it as refugees marching across war-torn lands. That is why those movies do not provide any of the heroic tales and breathtaking spectacles that are normally found in other generic war movies. Those movies instead offer glimpses of self-consciousness as "victims" and convey emotions of bitterness and remorse. However, once transferred onto the land of China, the 'KangmeiYuanchao' War gets completely different treatment. China completed a picture of the "War to Resist America Aid Korea" by converting what was practically a defeat into an ultimate victory. The mass media in China concealed the damage done by the war but repeatedly reproduced images of "victory." The Chinese people,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internalized those images and were incorporated into China's Cold War ideological mechanism.

The memories of the war may seem stable and unambiguous but in fact they are an unstable and incomplete construct. Despite all that, the memories of the war have an indelible impact on people's perception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ost Cold War cultures and their de-political mechanisms through Korea-China blockbuster movie comparison.

Key words : the Korean War, 〈Brotherhood Of War〉, 〈Assembly〉, humanism, de-politics.

투 고 일 : 2017. 7. 10. / 심 사 일 : 2017. 7. 15.~ 2017. 8. 15. / 게재확정일 : 2017. 8. 20.
--